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행 <50>

부처가 되겠다는 헛된 꿈 꾸지 말라

학승이 말했다.
“신령한 묘(苗)가 뿌리가 없을 때[無根]는 어
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 어디에서 왔는가?”
학승이 말했다.
“태원(太原)에서 왔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매우 훌륭한 무근(無根)이군.”

問 靈苗無根時如何
師云 你從什麼處來
云 太原來 大好無根

여기서 뿌리는 근원을 말하고 묘(苗)는 어린 싹
이니, 근원에서 자라난 현상을 말한다. 만일 자성
을 뿌리라고 말한다면 묘는 마음의 씩씩이[用]이
다. 만일 묘가 우주 삼라만상이라면 뿌리는 우주
삼라만상이 나온 곳을 말한다.

모든 것은 근원이 있다. 근원을 발판하여 모든
현상이 벌어진다. 그런데 우주의 근원은 무근(無
根)이다. 무근이 근원이다. 무근에서 삼라만상이
세워졌다. 공즉시색(空即是色)이다. 이것이 진리
이다. 즉, 공이 만물의 근원인 것이다. 그러하니
탕 빈 것을 토대로 위에서 만들어진 만물이 어찌
신령하지 않겠는가.

선사가 학승에게 온 곳을 묻는 것은 어느 지역
에서 온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다. 부모에게 태
어나기 이전의 장소를 묻는 것이다. 사람의 근원
을 묻는 것이다. 그러나 초학승은 그것을 모르는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학승은 자기가 온 지명을
했다. 바로 '태원'이라는 지역 명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학승이 자기가 온 근원은 모르면서도
태원(太原)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매우 신비로운
일이 아닌가? 그야말로 무근의 신령한 작용이다.
조주 선사는 바로 이 점을 학승에게 알리고 싶었
던 것이다. “무근? 그것 당연한 것이고, 그것 봐,
매우 훌륭하잖아?”라는 뜻을 학승에게 말하고 있
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제가 부처가 되려고 할 때는 어때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대단히 고생하게 될 거야.”
학승이 말했다.
“고생하지 않으면 어때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렇다면 부처가 된 거지.”

問 學人擬作佛時如何
師云 大煞費力生

不費力時如何
師云 如麼即作佛去也

하하, 선문에 들어와서 부처가 되려고 하더니,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
런데 지금도 부처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
들이 있으니 이것은 모래를 써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을 뿐이다.

그런데 이 보다 더 애석한 것은 금생에 뼈를 깎
는 수행을 하다가 부처가 되지 못한다면 다음 생
을 기약하겠다고 다음 생까지 헛된 고생을 맹세
하는 사람들이다. 이 모두가 참된 스승을 찾지 못
해서 생기는 병통이다. 차라리 누더기를 기우면
서 세월을 보낼망정 부처가 되겠다는 헛된 꿈은
꾸지 말아야 한다.

학승이 물었다.
“저는 혼돈에 빠져서 가라앉았다가 떠올랐다가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부처 되려 애 쓰는 사람은

모래로 밥 지으려는 것

다음생 기약한다는 맹세는

참된 스승 못만난 병통

조주 스님은 그저 아무 말 없이 앉아있었다.

학승이 말했다.
“제가 화상께 묻고 있지 않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 도대체 어디에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하
는 것인가?”

問 學人昏鈍在一浮沉 如何得出
師只據坐
云 某甲實問和尚
師云 你甚處作一浮一沉

혹은 미움이 일어나 분노가 일어나다가 혹은
사랑이 일어나 기뻐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수
행자들의 고민이다.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
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도 경계가 닦여오면 분별
이 생기고 증생의 감정에 휘말린다.
나의 본성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 나의 본

성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 나의 본성은 그 무
엇에도 유혹되지 않는다. 나의 본성은 항상 고요
하다. 나는 항상 편안하다. 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으나 여전히 눈앞의 경계에 부침하고 있는
것은 한 마디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일단 한번
깨달으면 늘 깨어있게 되지만 깨닫지 못하면 습
성에 이끌리기 쉽다.

선사의 대답은 학승을 일깨우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조주 스님은 조금의 틈도 놓
치지 않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자네, 지금
이 순간에도 답답해서 부침하고 있잖아. 매순간
을 놓치지 말란 말이야”하고 학승이 부침에서 벗
어나게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부침은 습관이다. 깨달아서 한 번에 습성을 제
거하지 못한다면 매순간 내가 쓸데없는 것에 혈
땀거르고 있지 않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
게 오랜 시간 점검하다 보면 어느 날 부처와 똑같
은 마음이 돼있을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대천제(大闡提)와 같은 사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내 그대에게 대답하겠다. 민겠는가?”
학승이 말했다.
“화상께서 힘주어 말씀하시는데 어찌 믿지 않
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한 사람의 천제인(闡提人)도 찾기 힘들어.”

問 如何是大闡提底人
師云 老僧答你 還信否
云 和尚重言那敢不信
師云 莫箇闡提 難得

천제(闡提)는 성불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부처의 성품을 타고 났으므로 잡
재적 부처이다. 그런데 증생이 부처가 되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증생의 미몽
에서 깨어나야 부처를 회복하는 것이다.

잠에서 깨어나려면 가장 먼저 자신이 원래 부
처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깨달
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천제(闡
提)는 불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 자신이 부
처임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유일하게 부처가 되
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주 스님은 천제는 없다고 역설했다.
비록 천제가 불신한다 하여도 천제의 성품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천제가 부처를
불신한다해도 여전히 천제는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천제는 없다는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선법, 활발한 교학 토대로 수용



선어록 해제 30
한국선과 선어록 1
김구 한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고구려에 불교가 공인된 것은 4세기 후반으로 알
려져 있다. 이후 백제 및 신라에 이르기까지 전래되
어 다양한 교리의 연구 및 학파가 형성돼 갔다.

선법의 전래는 불교의 전래보다 350여 년 후인 8
세기 중반에 법랑을 통해 전래됐다. 다시 본격적으
로 선법이 수용되고 이해되기까지는 80여 년이 흘
렀다.

선법의 초전 시대인 통일신라에는 이미 활발한
교학적 토대가 구축돼 있었다. 새롭게 전승된 선법
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신라에 뿌리를 내리기 위
해서는 선법이 지닌 특유한 사상 및 방식의 우월
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곧 무연의
무설토론(無舌土論)·범일의 진귀조사설(眞歸祖
師說) 기타 조사선법의 계승에 근거해 선교차별
(禪教差別)을 앞세워 선법의 우위를 강조한 내용
들이었다.

이 같은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미 교학을
공부한 이후에 보다 새로운 선법을 추구했다는 내
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교법보다는 선법이 뛰어
나다는 내용을 전개하기도 했다. 선법에서도 실천
적인 조사선(祖師禪)이 교학적인 여래선(如來禪)보
다 뛰어난다는 것도 강조했다.

이 같은 초기 선법의 전래는 당(唐)에서 소위
선종오가(禪宗五家)가 형성되기 직전인 9세기 초
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입
당 유학승들을 통해 지속
적으로 전래
돼 중국에서
선종오가가 형성된 직후에 해당하는 10세기 후반
에는 신라에도 선종오가의 다양한 선법으로 전래
됐다.

특히 오가 가운데는 조동종(曹洞宗) 선법이 비교
적 이른 시기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전래됐고, 위
양종(禪仰宗)의 선법은 순지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
졌다. 이로써 고려 초기에는 운문종(雲門宗)과 임제
종(臨濟宗)과 법안종(法眼宗) 등 오가의 선종이 모
두 고려에 전승됐다.

선종이 꾸준히 전래되어 가면서 그 사상적인
면모를 직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선어록 등장도 더
불어 출현했다. 특히 본격적인 어록의 형태는 아닐
지라도 <조당집>에 수록돼 있는 요오순지(了悟順
之)의 법어는 <순지어록(順之語錄)>으로 불려도 손
색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선어록은 상
당히 늦은 시기인 보조지눌(普照知訥)에 와서야 가
능했지만 그 선구는 이미 순지로부터 찾아볼 수가

있었다.
순지의 법어 곧 어록을 통해 당(唐)으로부터 전래
된 선법뿐만 아니라 해동선법에서 계승되고 발전된
원상선법과 화엄선법의 면모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다.

고려시대 중기에는 소위 거사선(居士禪)으로
대표되는 선법이 등장했다. 선법은 교양으로서 수
양법으로 수용돼 종파의식은 미미했다. 이는 종파
의식이 우월했던 중국선과 비교 했을 때 매우 빈
약했던 어록의 출현 빈도를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다.

무신정권 이후부터 선법이 크게 발전하면서 고
려시대를 통해 화엄교학과 그 주도권 다툼의 모습
으로까지 전개돼 갔다.

또한 고려 후기에는 기존 오가선법의 바탕과 더
불어 원(元)으로부터 새롭게 수입된 임제선법의 출
현으로 말미암아 법맥에 대한 자각이 크게 강조됐
다. 곧 고려후기부터 선과 관련된 문헌이 본격적으
로 등장해 어록을 비롯한 전등사서 및 개인문집의
성격을 지닌 가송 등이 등장했다.

고려 후기부터는 사상적인 전개보다는 오히려 법
맥의 전승에 따라 좌우되는 모습으로 전개돼 갔다.
이 점은 조선시대 배불정책의 상황에서 법통의 계
승이라는 긍정적 역할로도 작용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그만 초종월격(超宗越格)의 종지를 강조
하는 개별적인 선법의 특수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대로 기존의 전통에 매몰돼 오히려 생기발달했던
선법의 본래정신이 심히 위축되는 결과로 나타났
다. 그 결과 조선초기에는 어록에 해당하는 선적이
매우 드물었다.

태고보우(太古普愚)와 나옹혜근(懶翁慧勤)의 법
맥으로부터 전개된 조선시대의 선법은 부휴선수
(浮休善修)와
청허휴정(淸
虛休靜)을 거
치면서 더욱
더 임제선법
의 틀에 갇혀
서 이전의 선

종오가 내지 오가를 뛰어넘는 선법을 전개하지 못
했다.

조선시대 중기에 이르러서는 환성지안(喚醒志安)
의 <선문오종강요(禪門五宗綱要)>에서 볼 수 있듯
이 오가에 대해 그 중심이 도그마적인 사상의 인식
으로 흘러갔다.

이로써 보편적인 선법의 창출 내지 교의의 전승
보다는 자파의 교의를 내세운 호교적인 변론이나
임간에서 누리는 한도인의 안빈낙도의 유희를 내세
운 내용으로 채워진 개인적인 문집의 성격이 강한
내용들이 다수 출현했다.

조선시대 후기에 백파공선(白坡公顯)으로부터 촉
발된 임제선법의 교의에 근거해 나타난 선문의 전
개가 그 일례이다. 때문에 이것은 조선시대 선법의
역사가 지닌 한계이기도 하면서 종파나 문종의 전
통적인 교의의 전차보다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개
별적인 선법의 특징을 밝혀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8세기 중반, 법랑 통해 선법 최초 전래

한국선 선어록 선구자는 요오순지

종오가 내지 오가를 뛰어넘는 선법을 전개하지 못
했다.

조선시대 중기에 이르러서는 환성지안(喚醒志安)
의 <선문오종강요(禪門五宗綱要)>에서 볼 수 있듯
이 오가에 대해 그 중심이 도그마적인 사상의 인식
으로 흘러갔다.

이로써 보편적인 선법의 창출 내지 교의의 전승
보다는 자파의 교의를 내세운 호교적인 변론이나
임간에서 누리는 한도인의 안빈낙도의 유희를 내세
운 내용으로 채워진 개인적인 문집의 성격이 강한
내용들이 다수 출현했다.

조선시대 후기에 백파공선(白坡公顯)으로부터 촉
발된 임제선법의 교의에 근거해 나타난 선문의 전
개가 그 일례이다. 때문에 이것은 조선시대 선법의
역사가 지닌 한계이기도 하면서 종파나 문종의 전
통적인 교의의 전차보다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개
별적인 선법의 특징을 밝혀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2011년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사업 공모

(재)선학원 부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에서는 한국불교학의 발전과 불교학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연구자들의 독창적이고 충실한 연구 성과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제 5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공모

- 공모주제**
 - 불교학 (선학·교학·불교사)
 - 응용불교학 (불교사회복지·불교경제학·불교심리학·불교문학·불교예술 등)
 - 한국근현대불교와 선학원 관련된 주제
 - 기타 불교와 관련된 자유주제
- 지원자격**
불교학 분야 박사과정 수료이상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은 제외)
- 선정규모 및 특전**
우수상 (1명) 500만원 · 학술상 (3명) 1인당 300만원
등재후보지 「선문화연구」에 게재
- 제출서류**
 - (1) 연구계획서 : A4 15매 내외
(연구목적·연구내용 및 방법·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참고문헌 포함, 연구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2) 최근 5년간 연구 실적목록 1부
 - (3) 연구 실적목록상에 기입된 실적물 각 1부
 - (4) 이력서 (주소·전화번호·e-mail은 반드시 기입할 것)
- 제출기한 및 발표**
 - (1) 제출기한 : 2011년 1월 22일 ~ 2월 15일 오후 5시까지
 - (2) 선정 및 통보 : 2011년 2월 25일 예정
(선정자에 한해서 개별통보)
 - (3) 학술상 시상식 및 학술회의 : 2011년 5월 (예정)
 - (4) 발표논문제출과 논문집 간행 : 2011년 6월
- 주의사항**
 - (1) 선정자는 2011년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전반기 학술회의에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 (2) 발표논문은 학계에 이미 발표된 적이 없는 참신한 논문이어야 한다. (연구내용의 표절 혹은 중복의 경우 선정 이후에도 수상 취소될 수 있음).
- (3) 선정논문은 본 연구원의 학술회의 발표 이후 논문집 「선문화연구」에 게재해야 한다.

2. 월례발표회

- 발표주제**
 - (1) 불교학과 불교사 및 응용불교학
 - (2) 한국불교학과 불교사 및 응용불교학
 - (3) 한국근현대불교와 선학원
 - (4) 한국근현대불교사상 및 문화 (불교문학·불교음악·불교미술 등)
 - 발표분량** : A4 10매 내외
 - 발표자격** : 박사과정 이상자
 - 발표신청기간** : 연중 수시
 - 특 전**
 - (1) 소정의 발표비 지급
 - (2) 심사 후 본 연구원 논문집 「선문화연구」에 논문 게재
 - (3) 등재후보지 「선문화연구」에 논문 게재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 문의 및 서류 제출처
110 - 240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82번지
(재)선학원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연락처 02)734-9653, 9657 / 팩스 02)734-9622
홈페이지 : http://www.seonhakwon.or.kr/seonli
연구원 메일 : seonhakwon@paran.com

공 고

대한불교원효종 특별대리인 종정 청은 스님

대한불교원효종 종도 사부대중여러분
대한불교원효종은 2003년 3월 10일 이법흥 종정께서 원적하시면서 일부 몰지각한 자객없는 해종자들이
법적으로 시비를 일으켜서 종단 장종 재산 망월사를 빼들려 혼란이 되었으니 심히도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 문서증거판결문 2010 나 4388 대구고등법원에 의해 ※ 특별대리인 우중산 스님으로 승소하였으며 대법에도
2010.6.10 승소 하였으며 위와 같이 처분 권한이 없는자들에 의해 이루어진것 무효라는 판결이 2010.10.29일
대구고법에서 최종판결이 내려졌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에서 인정된 대한불교원효종 특별대리인 우중산 스님 승인이 없는 대한불교원효종 직함이나 명칭을 도용
하거나 종단재산을 횡령편취하는 행위 종단에 해종행위를 하는 경우 엄중히 문책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종단분규를 조장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해종행위자들의 감언에 현혹되지 마시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으니 종도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자리를 지켜주시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불교원효종 특별대리인 우중산 종정 청은 스님 대한불교원효종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사무소
충남 금산군 금산읍 계진리 405번지 관음사 전화 041)754-0121 팩스 041)754-7088
대한불교원효종 신규등록, 재등록을 하고자 하시는 사람은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혜 월 011-9783-9417